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의 경관풍수적 평가

옥한석(강원대 지리교육과, ock@kangwon.ac.kr)

1. 서론

2005년 3월 18일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78호에 의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2005년 5월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이 지정되고 6월부터 이전 계획이 수립된 다음, 12월에 용지 매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2006년 1월에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건설청'이 설치되고 2007년 이후 실시 계획을 수립, 부지조성 공사에 착공하게 된다.

이러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가시화된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설계에는 풍수지리의 개념을 도입하여 풍수지리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도시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전통 사회에서 도읍의 입지 및 그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풍수지리가 상당한 영향을 끼쳐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풍수지리가 문순계절풍이 불고 산지가 많은 동아시아의 환경에 나름대로 적응하여 나타난 전략이기 때문이다. 어떤 지역 또는 장소를 풍수지리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이기론, 형기론, 기의 체험, 마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성동환 외, 1994; 옥한석, 2003). 이 연구는 형기론(특별히 경관풍수)¹⁾라고 필자가 일컫는) 입장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건설예정지를 2004년 4월중 3차례 답사한 결과이다.

* 어떤 지역을 경관 풍수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산계와 수계로 이루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즉 일정한 국내에서 어떤 곳이 개방성, 중첩성, 안정성, 조화성, 균형성의 5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 곳(이른바 명당)을 찾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곳은 다음의 10개 조건으로 평가된다. ① 특정 사이트에서 뒤를 보았을 때 주산이 뚜렷하고 안정적인가?(주산) ②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보았을 때 시야가 반쯤 열리고 안산과 조산을 이루어내는 산줄기가 3겹 이상 펼쳐지는가?(안산과 조산, 들) ③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보았을 때 안산과 조산 산줄기 사이로 작은 하천, 큰 하천이 차례로 에워싸고 있으며 수구가 막혀있는가?(물길과 수구), ④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보았을 때 안산과 조산 산줄기 상에 상징적인 산봉우리가 나타나는가?(산모습) ⑤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보았을 때 안산과 조산 산줄기의 간격이 어떠한가?(짜임새) ⑥ 특정 사이트에서 앞을 바라보았을 때 좌우대칭적인 방향은 어떠한가?(정향) ⑦ 특정 사이트에서 뒤를 보았을 때 조산에서 주산, 주산에서 특정 사이트까지 산줄기의 흐름이 뚜렷한가?(용의 흐름과 입수), ⑧ 특정 사이트에서 좌우를 보았을 때 에워싸고 있는 산줄기가 좌우 양쪽에 있는가?(좌청룡, 우백호, 각) ⑨ 특정 사이트에서 좌우를 보았을 때 산줄기가 에워싸며 기복을 보이는가?(산의 앞뒤, 품격) ⑩ 특정 사이트는 밥공기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안정된 모습이며 토질이 좋은가?(혈처의 모습)

2.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의 경관풍수적 평가

5월에 지정 고시될 예정인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는 연기군의 남면(고정리, 연기리, 갈운리, 월산리, 방축리, 양화리, 종촌리, 진의리, 송담리, 나성리, 송원리), 동면(용호리, 합강리), 금남면(봉기리, 반교리, 석교리, 석삼리, 장재리, 호탄리, 대평리), 공주시(제천리, 당암리)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은 금강을 끼고 있어 득수에 대단히 유리하고, 속리산을 중조로 하여 분지한 한남금북정맥·금북정맥·금남호남정맥·금남정맥의 4대 정맥으로 둘러싸여 있어 장풍에도 유리하다. 또한 이 지역은 금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의 소조인 국사봉과 남쪽의 소조인 계룡산이 마주하고 있지만 국사봉에서 원수산에 이르는 용맥이 낮고 완만한 반면, 계룡산에서 비학산에 이르는 용맥은 굴곡이 심하고 기세가 찌르는 듯하여 상제봉조격이다. 그래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는 '생기가 충만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도시설계 방향에 따라 생기 충만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다.

답사 결과 경관 풍수적 조건을 상당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생기 충만한 장소'가 두 군데 발견되었다. 이를 경관풍수적으로 평가하면 다음 표1과 같다.

기준/장소	"기"지역(꽃이 만개한 형)	"나"지역(금반형)
① 주산	뚜렷하고 안정적이다	비교적 안정적이다
② 안산과 조산과 들	나타나며 펼쳐진다	나타나며 펼쳐진다
③ 물길과 수구	나타난다	나타난다
④ 산모습	보통이다	보통이다
⑤ 짜임새	영성하다	잘 짜여있다
⑥ 정향	좌우대칭적이지 않다	좌우대칭적이지 않다
⑦ 용의 흐름과 입수	뚜렷하지 않다	뚜렷하다
⑧ 좌청룡과 우백호	우백호가 약하다	보통이다
⑨ 산의 품격	밋밋하다	기복을 보인다
⑩ 혈치의 모습	불안정하다	안정되어 있다

표 1. 경관 풍수 기준에 의한 평가

3. 결론

조선시대 초 한양에 왕도 건설 시 풍수지리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였음을 생각할 때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설계, 건설함에 있어서 풍수지리를 고려하는 일은 쉽지 않다. 새로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우리나라 국토 공간의 배치와 사람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풍수지리 요

인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풍수지리를 고려하게 되면 건물 배치와 용도지역의 설정에 제약을 받게 되고, 비보와 염승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하므로 거주장소로 쓸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요인이 가장 한국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도움을 주게 된다고 본다.

참고문헌

- 박시익, 1999,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 옥한석, 2003, “안동의 풍수 경관 연구: 음택명당을 중심으로”, 2003, 대한지리학회지, 제38권 제 1호, 대한지리학회, pp. 70-86.
- 옥한석·박우평, 2003, “북한강유역에 있어서 경관풍수에 의한 전원주택 후보지의 선정”, 사진지리, 제13호, 한국사진지리학회, pp.59-72.
- 한동환·성동환·최원석, 1994, 자연을 읽는 지혜: 우리 땅 풍수기행, 푸른나무, 서울